

#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 잊지 마세요!

## 결핵환자 감소세에도 65세 이상 결핵 발생률 뚜렷한 증가세

대구광역시는 노인 결핵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연 1회 무료 결핵검진' 독려를 위해 9개 구·군 보건소와 함께 4분기(10~12월) 집중 홍보 활동을 한다.

결핵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힌 질병으로 인식되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 국가로, 국내 감염병 중에서도 코로나19를 제외하고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다.

주로 결핵균이 원인이 되는 호흡기 전파 질환인 결핵은 밀접 접촉자의 약 30%가 무증상으로 잠복감염되고, 이

중 약 10%의 감염자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 등 감염률도 높은 편이다.

\* 잠복결핵감염: 결핵균이 휴면 중인 상태.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결핵 발병(치료 받으면 결핵 90% 예방)

\*\* 결핵의심증상: 2주 이상 기침, 체중 감소, 식욕부진, 발열 등

\*\*\* (치명률) 결핵 약 9%, 코로나 0.88%, 인플루엔자 0.03~0.07%

실제, 대구지역의 2023년 결핵 신환자율은 33.5명으로 62.6%가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등 결핵은 현재도 진행 중인 질환이다.

65세 이상 결핵 환자 증가 양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에 따라 기저 질환 및 면역력·신체기능 저하를 가진 65세 이상의 결핵 발생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된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발견 환자의 84.2%가 무증상으로 응답함에 따라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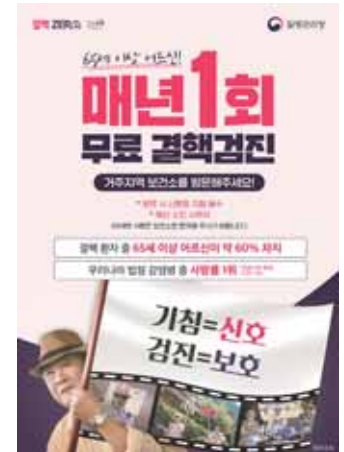
이에, 9개 구·군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인 환자 발견과 전파 차단을 위해 보건소 내 소 어르신 대상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 중으로, 대구시는 수검률 향상을 위해 '기침=신호, 검진=보호'라는 메시지와 함께 정기적인 결핵 검진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검진을 독려하는 집중 캠페인\*을 하반기 진행 중이다.

\*포스터 부착(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의원, 경로당), 각종 전광판 홍보, 누리집 게재, 현수막 게시, 리플렛 배부 등

무료 결핵검진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 결핵실로 문의하면 된다.

검진을 통해 발견된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별 치료여건에 따른 복약관리,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돌봄, 생계, 주거, 이주 지원 등 정부 지원서비스 연계) 등으로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정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결핵의 빠른 발견과 치료를 위해 연 1회 보건소 무료 결핵



검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생활 속 결핵예방수칙 ① 정기적인 결핵검진으로 건강 지키기 ②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 가리기 ③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④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로 체력 키우기

### 건강칼럼



보생조한의원 원장 조현정



#### 대상포진 '면역력 회복'을 통해 회복

환절기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는 잠복해 있던 수두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지게 된다. 급격한 기온 변화, 만성피로, 영양부족, 면역력 저하, 기저질환 등은 대상포진 발병위험을 높이게 되며, 50대 이상 여성에서 발병률이 높다.

대상포진은 몸 한쪽에서 띠처럼 나타나는 발진과 수포, 통증이 특징으로, 가려움, 따끔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바이러스가 활성화된 신경에 따라서는 안면신경마비, 귀의 통증, 후각/미각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상포진으로 인한 피부병변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해당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 따가움, 가려움 등 이상 감각 등을 느끼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같은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대상포진 환자의 10~20%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포진 후 후유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발병 72시간 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필요하며, 대상포진이 발생한 원인인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해야 한다.

한의원에서선 환자의 체질과 대상포진 단계에 맞춘 한약을 기본으로 하여 대상포진을 치료한다. 염증을 제거하면서 면역력을 강화하여 인체의 회복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대상포진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빠르게 억제할 뿐 아니라 재발 및 후유증을 예방한다.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한약재를 통해 염증을 빠르게 제거하고 환자의 체질에 맞는 한약재를 통해 기혈순환을 촉진하며, 건강 상태에 맞는 약침, 침, 뜸 치료 등을 병행한다. 이미 신경통, 안면신경마비와 같은 후유증이 생긴 경우, 침, 뜸치료를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마비를 치료할 수 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대상포진이기 때문에 평상시 면역력 관리에 힘써야 한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주3~4회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만약 대상포진이 발생했다면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며 적절한 영양섭취와 수분섭취에 신경써야 한다.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보생조한의원 ☎053-564-0401



#### 달서구 보건소 2024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훈련

달서구 보건소(구청장 이태훈)가 지난 16일(수) 구청 총무관에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행위 증가 및 생물테러 감염병의 국내유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 시 초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초동대응요원의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었다.



#### 대구강서소방서, 숙박시설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대구강서소방서는 지난 10일(목) 소방서 강당에서 숙박시설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QR코드를 활용한 피난안내도 소개 및 설치 안내 ▲완강기 사용법 실습 ▲화재 시 관계인 및 이용자 초기대응능력 향상 교육 ▲도어클로저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교육 등이다.

<자료제공:대구강서소방서>